신세계의 '일자리 신세계'… 파트너社와 올 1만명 채용

채용박람회 개최

서울·경기 우수기업 동반 개최

16개 계열사·63개 파트너사 등 참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은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세계그룹과 파트너사, 서울·경기 지역 우수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고용 창출에 나서는 상생 채용의 장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신세계그룹사와 파트너사 등 총 1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채용에 나선다. 수도권 강소기업도 박람회에 참여하는 '열린 채용박람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L&B,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디에프, 신세계TV쇼핑, 신세계프라퍼티, SSG.com 등 16개사가 참여한다.

파트너사에서는 대연, 골든듀, 아가방컴퍼니, 영풍문고, 키즈웰, 지오다노, 프라다코리아 등 63개사가 함께한다.

또 수도권 강소기업으로는 세계 최초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개발한 반도체 제조 기업 캠시스, O2O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옐로우투오 등 2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코엑스 D2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여기업별 부스에는 각 기업 채용담당자가 상주하며 채용 안내,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 당일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용진 부회장과 참여기업사 대표이사들이 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참여 기업에 감사를 전하고 내실 있는 채용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채용 노하우를 알려주는 1:1 취업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서 제공하는 이력서 사진 서비스, 면접에 필요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코디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명사 특강도 열린다. 평창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가 '청춘들에게 전하는 도전이야기'를 주제로 구직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으로 신세계는 매년 1만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확대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채용 박람회를 통해 신세계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구직자와 직접 소통하고 고용과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롯데百, 단일 트렌드 아이템 'OIO' 매장 선봬

〈One Item Only〉

한 아이템으로 '덕후·매니아' 공략

펜 전문매장·골프화전문매장 등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오픈한 남성 전용 캐시미어 전문 매장 '캐시미어하우스' 전경.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2018년 봄, 여름(SS) 매장 정기 개편 시즌을 맞아 단일 아이템에 집중하고 전문화한 '원 아이템 온니(One Item Only)' 매장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 아이템 온리(One Item Only) 매장은 다양한 상품군을 한군데 모아 판매하는 편집 매장과 달리 한 가지 아이템에 주력하여 판매하는 곳이다.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덕후, 매니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6일에 남성 전용 캐시미어 전문 매장인 '캐시미어 하우스'를 광주점 7층에 오픈했다. 남성 패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남성 의류 소재 또한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오는 29일 부산본점 4층에는 모나미에서 출시하는 모든 펜(Pen)을 만나볼 수 있는 문구류 덕후를 위한 펜(pen)전문 매장인 '모나미 컨셉 스토어'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어 30일에는 본점 5층에 꽃 전문 매장인 '플라르'를 오픈해 매니아 층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증가하는 골프 매니아 층을 위한 골프화 전문 매장인 '골프 슈 갤러리'를 오는 4월6일 잠실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4층에 새롭게 오픈한다. 150개 이상의 스타일을 보유한 골프화 전문 매장이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니트 전문 PB 매장인 '유닛(UNIT)', 양말 전문 매장 '보타(VOTTA)'. 셔츠 전문 매장 '맨잇셔츠(Man It Shirts)' 등의 원 아이템 온리 매장을 유치하거나 팝업 행사를 통해 선보여왔다.

니트 전문 매장 '유닛'의 경우 2015년에 런칭해 2016년 400%, 2017년에 75%가 각각 신장했다. 양말 전문 매장인 '보타'와 셔츠 전문 매장 '맨잇셔츠'는 연간 평균 30% 이상의 남성 신규 고객을 창출해냈다.

정동혁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한 상품에 집중하는 '원 아이템 온니(OIO)' 매장은 일반 편집 매장과는 다르게 단일 트렌드 아이템을 이슈화해서 매니아 층을 공략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백화점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신선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늘어나는 '脫미세먼지' 소비… 가전매출 ⬆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매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가전 소비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다 보니 건강을 걱정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구매에 나섰고 빨래를 실외에 내걸기 어렵게 되면서 건조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같은 생활환경 변화는 물론 올림픽 특수까지 이어져 가전 매출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이마트의 건조기·스타일러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85.3% 급증했다. 잦은 미세먼지 발생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매출도 385% 늘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넓은 평수에 적용이 가능한 고가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고객 1인당 구매단가가 지난해 보다 20만원가량 증가, 향후에도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힘입어 이마트의 전체 가전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32.2% 성장, 전체 매출 신장률인 5%보다 6배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1일~3월 11일 8.1%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2%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와 달라진 라이프스타일 덕에 다양한 가전제품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며 "가전제품이 저성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가전 매출 특수는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체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4%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가전 매출은 32.8%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견인했다.

건조기와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생활환경 변화와 관련한 가전제품의 매출이 300% 이상 급증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요로 TV 매출도 47.8% 늘었다. 다이슨, 밀레 등 수입 청소기 매출도 66.2%나 뛰었다. /김유진 기자

AK몰 '샤프' 공기청정기 한국 판매권 획득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 특허기능 탑재

AK몰은 종합가전 글로벌 브랜드 '샤프'와 국내 공식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샤프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한국 내 판매권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샤프 공기청정기는 최신 연간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공기청정기 브랜드'로 기네스 세계기록으로 인정받아 '기네스 월드 레코드 2018'에 등재된 제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0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AK몰이 판매하는 샤프의 3개 신모델(총 6종)은 모두 샤프의 특허 기술인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 기능이 탑재되고 황사와 미세먼지(PM10)는 물론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입자까지 99.97% 이상 제거하는 고밀도 HEPA 필터가 탑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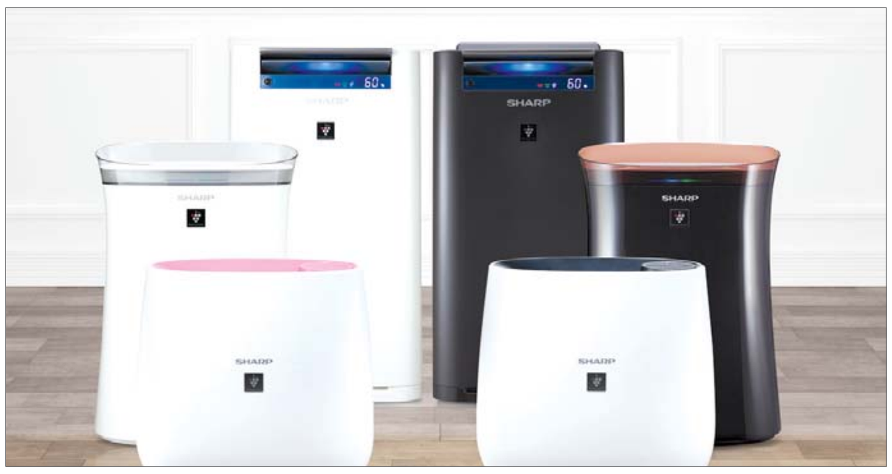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 기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 이온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다. 방출된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은 실내의 이온 균형을 잡아줘 불쾌한 정전기 제거를 통해 벽이나 커튼 등에 먼지가 붙는 것을 막아준다.

또 곰팡이균, 알레르기 물질 등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등 항균 효과에 탁월하고 음식물 냄새, 담배 냄새, 애완동물 냄새 등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샤프의 이온 효과 특허 기술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세계 28개소 검증기관에서 그 효과와 작용 메커니즘은 물론 인체의 안전성까지 입증 받았다.

국내에 출시되는 샤프 공기청정기 3개 6종 모델은 공기청정면적에 따라 KC-J60K(50m^2 용), FP-J40K(30m^2 용), FP-J30K(22m^2 용)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훈 AK몰 사업부장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는 일년 내내 사용하는 생활필수 가전제품이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샤프 공기청정기의 공식 수입사로서 앞으로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샤프 공기청정기. /AK플라자

세븐일레븐

원푸드 도시락 출시

세븐일레븐은 다가오는 나들이 철을 맞아 간편하게 즐기는 원푸드 콘셉트의 도시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CJ제일제당 셰프팀과 공동 개발한 이번 시리즈는 '고메함박&베이컨볶음밥'과 '카레&치킨가라아게', '오코노미야끼&스팸김밥' 등 총 3종이다. 최근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하나의 메뉴를 내세운 원(ONE)푸드 콘셉트이 특징이다. /김유진 기자